

오차야고텐[휴게소 저택] 터



오차야고텐이 소실된 후에도 이곳은 ‘고텐야마’ 또는 ‘고텐 터’라고 불리며 동서 45칸, 남북 27칸의 요케치[제지][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도카이도 분켄 노베에즈[도카이도 분간 연회도]’ 중 히라카타 슈쿠 부분(도쿄 국립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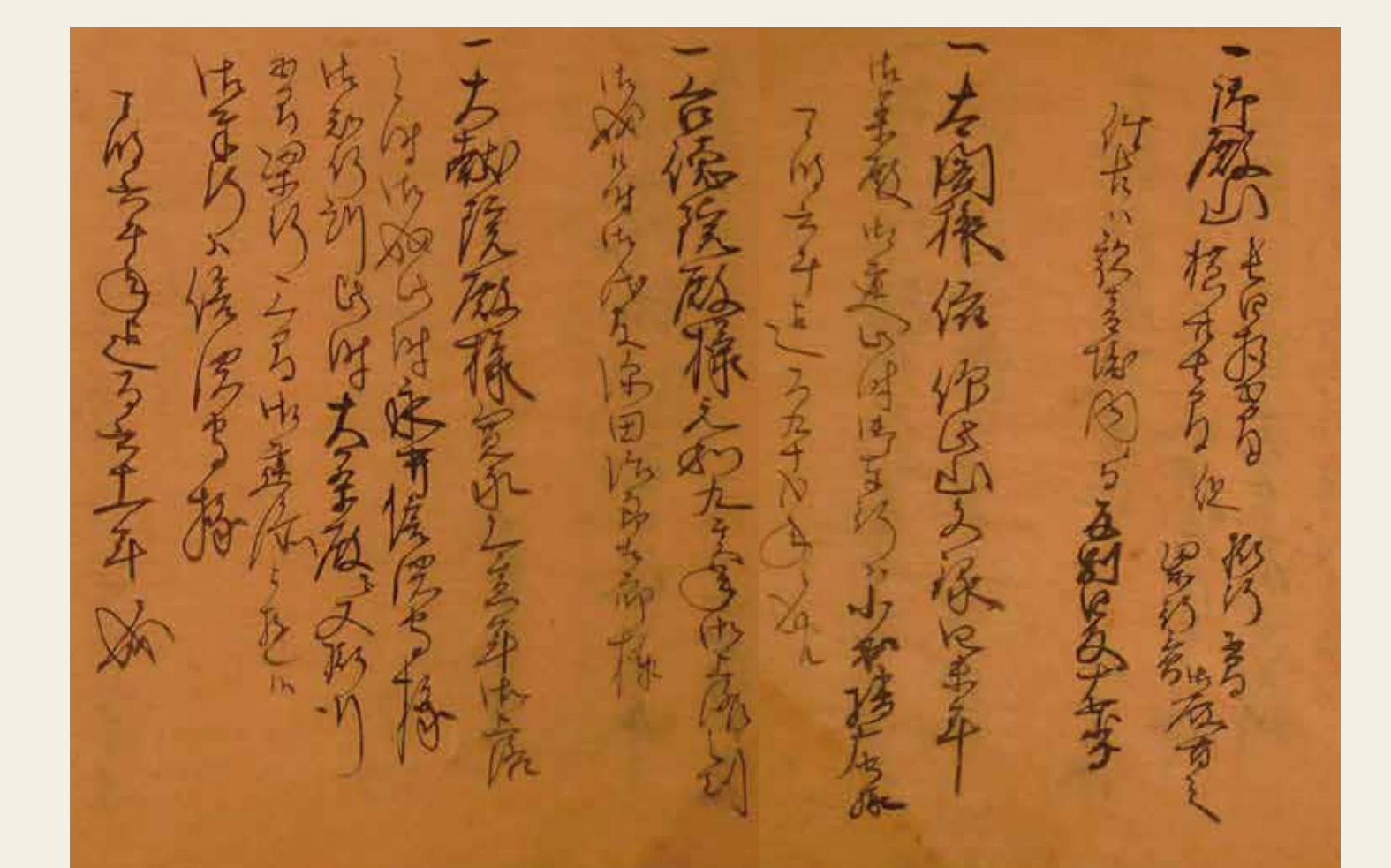
차야고텐이 소실되기 직전에 간행된 “가와치 감명소기”에는 세 채의 히와다부키[편백 나무껍질로 만든] 지붕 건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 소장)

교토와 오사카를 잇는 교통의 대동맥인 요도가와 강과 교가이도를 내려다보는 이곳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차야고텐[휴게소 저택]을 세운 것이 분로쿠 4년(1595)의 일입니다. 미츠야무라 마을에 남아있는 기록에서 히데요시가 이곳에 “오차덴[휴게소 저택]”을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히데요시의 가신인 히라카타 성주 혼다나이젠노카미 마사야스의 딸 ‘오토고젠’을 여기에 살게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교토 후시미와 오사카에 거점을 둔 히데요시는 이 사이를 자주 왕래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여기 히라카타에도 들렀을 겁니다. 분로쿠 5년(1596) 요도가와 강 제방을 보수할 때 강 건너 오텍카에서 히라카타의 공사 모습을 기분 좋게 바라보았다는 이야기도 남아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오차야고텐은 막부의 공용 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겐나 9년(1623)에는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간에이 3년(1626)에는 3대 쇼군 이에미츠가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에미츠가 방문했을 때는 히데요시가 지은 ‘오차덴’ 옆에 너비 5칸, 깊이 3칸의 전각이 신축되었습니다.

미츠야무라 기록에는 다이코[도요토미를 가리킴]라는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히라카타시 교육위원회 소장 오쿠다 가문 문서)

그 후로는 사용되지 않고 ‘오차덴’은 쇼오 3년(1654) 노후화로 인해 해체되었으며 새로 지은 전각은 그 자재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엔포 7년(1679) 7월 1일에 발생한 히라카타 슈쿠의 화재로 인해 새로 지은 전각도 함께 전소되어 이후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English guide
한국어 안내
中文 指南

